

담배는,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1. 간접흡연(Passive Smoking)이란?

수동흡연이라고도 하는데,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간접흡연만으로도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질환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 증가하고 생명의 단축 등 담배로 인한 피해를 받는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2. 주류연(主流煙)과 부류연(副流煙)이란?

주류연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하고 부류연은 불이 붙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연기를 말한다.

그런데 주류연과 부류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연보다 부류연이 훨씬 해롭기 때문이다. 주류연은 담배연기가 일단 흡입 과정에서 담배 속을 지나서 필터를 거치고 사람의 폐에 들어가서 나쁜 화합물을 다 내려놓고 나는 연

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해로운데 반하여 부류연은 생 담배가 그대로 타는 연기이기 때문에 담배가 갖고 있는 모든 해로운 물질들이 그대로 들어있어 대단히 해롭다.

3. 임신부의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임신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독성 물질이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건강에 다음과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저산소증으로 태아의 발육이 지연되어 약 200mg정도 체중이 낮은 아기가 태어난다.

둘째, 전치태반, 태반조기 박리, 조기 파막 등의 위험이 높아지며 아기의 출생전후 사망율이 높아진다.

셋째, 자연 유산과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영유아기에 신체적, 지적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다섯째, 태어난 어린이는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으로 아무도 모르게 큰 고통을 받는다. 74